

제 목	국 문	도농간 의료이용 수준비교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영 문	A Study on Utilization Level and Relating Factor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주 경 식 ¹ , 김 한 중 ² , 이 선 희 ² , 민 혜 영 ¹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¹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²		
	영 문	Kyeongsik Choo ¹ , Hanjoong Kim ² , Sunhee Lee ² , Haeyong Min ¹ 1)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 2)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주 경 식(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V) → 완료 예정 시기 : 95년 11월			
<p>1. 연구 목적</p> <p>의료보험 도입이후 경제적 접근도의 향상으로 도농간에 의료이용 수준의 격차가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보다 농촌의 의료의료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농간 의료이용 수준을 평가하고 아울러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1992년 6월 11일-7월 10일(1개월간)간의 가구면접조사를 거쳐 수집한 21,841명을 대상으로 시,군부간 의료이용량, 의료이용 횟수, 진료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수준의 차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Anderson모형을 토대로 개인적 특성, 의료이용 가능요인, 의료필요요인들에 대해 지역별 비교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1. 외래 총의료이용량은 군부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대도시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입원 이용량은 군부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구당 의료이용 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외래는 군부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입원의 경우엔 중소도시, 군부, 대도시순이었다. 의료이용자 1인당 의료이용 횟수는 외래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군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입원의 경우엔 군부가 가장 높았다. 외래 이용에 소요된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군부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p>2. 지역간 개인속성 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성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에 있어서는 군부에서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군부에서 이혼, 사별의 경우가 많았고 교육수준 역시 군부가 유의하게 낮았다.</p>				

3. 지역간 의료이용 가능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군부에서 저소득 계층이 많았고 의료보험 가입을 역시 낮았다. 공급요인에 있어서는 전체 의료기관수나 병의원수의 경우 군부가 낮았으나 보건기관수는 군부가 가장 높았다. 병상수나 의사수는 역시 군부가 가장 낮았다. 지역간 의료접근도를 비교하였을 때 외래나 입원 모두 군부에서 이동 소요시간과 이동비용이 높았으며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역시 군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지역간 필요 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평소 건강상태가 나쁜 인구의 비율이 군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급성 이환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만성 이환율에서 군부가 가장 높았다. 이환일수나 이환건수 그리고 침상와병일수 역시 군부가 가장 높았다.

5. 지역간 의료필요충족도를 비교평가하였을 때 이환상태에 대한 이용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활동제한일수에 대한 이용량은 외래, 입원 모두 군부가 낮았다.

6. 이용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외래나 입원 모두 방문여부의 경우엔 필요요인이 이용가능 요인보다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도시가 군부보다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이용량에 관한 분석 역시 필요요인이 개인속성 요인이나 이용가능 요인보다 중요하게 기여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도시가 군부보다 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4. 고찰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의료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도농간 의료이용 수준은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을 구명한 결과 농촌의 높은 의료이용 수준은 의료필요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높은 이환상태 등 필요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